

《결혼식장에서의 거짓말: 멋진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

결혼서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대화'

원 저: 로빈 L. 스미스 | 역 자: 노은진 | 출판사: 창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자

얼마 전, 거의 10년 동안 여동생처럼 때로는 딸처럼 귀여워하던 아이의 결혼식 주례를 보았다. 내 앞에 선 두 남녀에서 이른바 '혼인서약'이란 것을 물었다. "신랑 ○○○ 군과 신부 ○○○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합니까?"라고, 물론 둘 모두 "예!"라고 또렷이 대답했다.

그런데 요즘에 이혼이란 낱말이 주변에서 자주 들린다. 주례 앞에서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잊은 것일까? 결국 주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 하기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성격 차이'는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심리학자 로빈 스미스(Robin L. Smith)가 《결혼식장에서의 거짓말: 멋진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Lies at the Altar : The Truth About Great Marriages, Hyperion)에서 그 해답을 찾아나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 갓 결혼한 신혼부부, 또 결혼한지 꽤 오래된 부부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조언을 전해준다.

진실된 아내와 남편? 어떻게 해야 진실된 남편이고 진실된 아내일까? 진실된 남편이고 진실된 아내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 것일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욕구도 있을 테고,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의혹도 있을 테고, 상대에 대한 터무니 없는 기대감도 있을 텐데 ...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장미빛 꿈에서 악몽으로 변해간다. 희망이라고 없는 고통스런 동거에 불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혼인서약을 할 때의 마음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저자는 한 마디로 '눈을 크게 뜨라!'고 조언한다. 어떤 원칙에서 살 것인지 혼인서약문을 다시 쓰라고 권한다. 저자는 추상적 조언으로 그치지 않는다. 저자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부부들의 경험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우리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부부가 서로 상대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부가 서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그럼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저자는 부부에게 '우리'라는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라고 권한다. '우리'는 '나', 즉 상대의 그늘에 가리지 않은 독립된 자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말이다. 달리 말하면, 결혼 생활은 내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삶도 아니고 상대가 내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삶도 아니다.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돌이켜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야 결혼의 행복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 신혼의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비밀의 요약이 '진실'에 있다. 내 안에 감춰진 '진실'만이 아니라 상대가 품고 있는 '진실'까지 찾아내야 한다. 그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화이다. 진실된 대화가 있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감춰진 진실이 찾아낼 수 있고, 내 안의 진실을 상대에게 진실되게 말해주어야 상대가 내 진실을 알 수 있는 법이다. 지금보다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가? 지금 부부 생활이 결코 괴로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가? 마음을 터놓고 진실한 대화를 나눠보라. 그럼 해결책이 보일 테니까.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 당신의 행복을 찾아나서도 늦지 않다. *******

글쓴이_ 강주현(번역가)

《우리는 한번 밖에 죽지 못한다- 샤를로트 코르데》

그녀는 왜 마라를 죽였는가?



재판장 :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동기는?

피고인 : 그가 행한 모든 죄악들이 바로 동기다. 그는 시민들을 전쟁에 몰아넣었고 스스로 절대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프랑스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나는 수십만 민중들을 구해내기 위해 그를 죽인 것이다.

재판관 : 이 살인으로 세상의 모든 마라들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는가?

피고인 : 적어도 이 죽음에 의해 또 다른 마라들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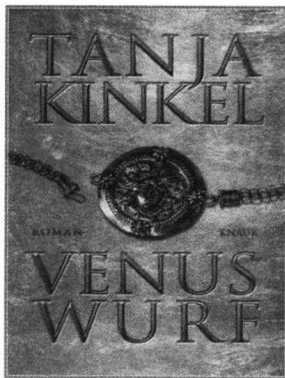
장 폴 마라는 당통,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자코뱅 당을 이끈 프랑스혁명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러나 자택에서 반대파인 지롱드당의 청년당원이었던 한 여인의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다. 마라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친구였던 화가 다비드는 유명한 그림을 통해 이 역사적 장면을 후세 사람들의 머리에 강하게 각인시킨다. 그의 그림 <마라의 죽음>에서 마라는 혁명의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다가 반대파 자객에 의해 영웅적인 죽음을 맞은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역사적 그림 속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동인인 암살자의 모습이다. 그림의 반대편엔 스물다섯의 한 젊은 여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창백한 얼굴로 금방 제 손으로 숨을 끊어놓은 희생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르망디 지방 출신의 시골처녀 샤를로트 코르데!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난생 처음 파리에 올라온 이 시골처녀는 계획했던 테러를 완성함으로써 이 역사적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다.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장-드니 브르덴은 《우리는 한 번밖에 죽지 못 한다-샤를로트 코르데》를 통해 프랑스혁명의 드라마 속에 짧게 등장했다 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파헤친다. 사실 샤를로트 코르데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다. 1793년 7월 11일 기차로 강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한 그녀는 이를 후인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핑계로 마라에게 접근하여 집에서 그를 살해하였고, 나흘 뒤인 7월 17일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역사 속 단역으로 등장했던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에 얽힌 사건과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역사서라기보다는 한 편의 로망처럼 흥미진진하다. 극적이었던 만큼 그녀의 짧은 행적은 역사 속에 많은 미스터리와 에피소드 그리고 전설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궁금한 점은 왜 그녀가 느닷없이 시골에서 올라와 혁명의 중심세력인 마라를 살해했느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영웅주의일 수도, 맹목적인 애국심일 수도,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결단일 수도 있다. 그 해답은 그녀의 개인사와 그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복원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후를 찾아내려는 검찰 앞에서 그녀는 끝끝내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재판부 측은 그녀가 임신중이었으며 살인을 사주한 것이 그녀의 정부라는 헛소문까지 만들어내며, 그녀의 행위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몰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너무도 침착하고 당당했으며 그녀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었다.

지은이가 무엇보다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 반혁명주의나 잘못된 정치적 선택, 소영웅주의, 심지어 한 여성의 히스테릭한 범죄행위 등으로 폄하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재판정에서 밝혔듯이 그녀의 선택은 혁명이 자신의 본질을 상실한 채 피의 살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인간적 선택이었다. 혁명의 뜨거운 옹호자였던 그녀는 혁명이 더 이상 민중들을 피의 제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테러를 감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의 의도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다. 마라의 죽음 이후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되고 혁명의 제물로 이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피가 단두대에 뿌려졌다. 그녀가 역사 속에서 패배자로 묘사되곤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책의 지은이 장-드니 브르덴은 이 여성 '테러리스트'를 통해 편견 없이 혁명의 단면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우연과 필연, 개인과 역사가 부딪히며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여준다. 혁명과 역사의 냉혹함은 변변한 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그녀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지만, 지은이와 함께 그녀의 행적에 접근할수록 독자들은 기꺼이 이 고독한 테러리스트를 위한 변호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

글쓴이_ 조정훈(번역가)



타냐 킹켈 《비너스 패》

노예의 눈으로 본 로마의 명암

원저 Tanja Kinkel
 원제 Venuswurf
 출판사 문학세계사
 출판년 2012

타냐 킹켈은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신예 작가이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녀가 가장 즐겨 쓰는 장르는 역사소설이다. 영국의 왕 헨리2세의 왕비이자 사자심왕의 어머니인 엘레오노레를 다룬 《아퀴텐의 암사자》와 《인형극 놀이꾼》 《늑대의 새끼들》 등의 역사소설로 이미 1990년대에 《슈피겔》지의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점령한 바 있는 그녀는 최근엔 잠시 역사소설을 접고 판타지 쪽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이번 2월에 출간된 새 소설 《비너스 패》를 들고 자신의 본래 영역으로 되돌아왔다.

소설의 배경은 서력기원 7년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의 역사적으로 가장 긴박감이 넘치던 시기이다. 주인공 테르티아는 농부의 딸이다. 난쟁이로 태어난 그녀는 말로만 들었던 웅장한 도시 로마를 보는 게 꿈이다. 그녀의 고향마을엔 가난과 힘든 노동밖에 없다. 이제 아버지는 소를 사기 위해 딸까지도 팔고 그렇게 해서 테르티아는 로마로 가게 된다. 사실 그것은 그녀가 은근히 바라던 바였다. 노예로 장터에 팔려나온 그녀를 음식점과 극예단을 운영하는 리쿠스라는 사람이 사간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테르티아는 인구 백만의 대도시 로마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곳의 일상을 접하게 된다. 화려한 궁궐 대신 그녀는 그 영원한 도시의 다른 면을 목격한다. 그곳에서는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거래되었다. 물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짐승들과 사람들까지도. 그곳엔 혼탁한 공기가 흘렀다. 그녀는 놀라운 일들과 색깔과 냄새의 세계를 하나둘 알아간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름도 울림이 좋은 안드로메다라고 갈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머릿속에 잘 새겨둔다. 그녀는 읽고 쓰고 그림 그리는 것까지 배운다. 그러던 중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자신의 후견인인 유릴라에게 선물한다. 유릴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 영리한 노예와 함께 정치적 음모를 꾸민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추방당했고 아버지와 다른 두 동생은 이상하게 죽었으니 자신의 신변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우구스투스의 왕비 리비아의 소행인 듯하다. 때문에 그녀는 무슨 술책을 쓰든 아우구스투스를 쫓아내야 한다. 소심한 성격의 그녀는 안드로메다를 이용한다. 둘은 신분이나 외모나 가진 것 등 모든 것이 너무나 판이하다. 하나는 권력에 굶주린 여인이고 다른 한 쪽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노예이다. 어쨌든 이 매력적인 두 여인이 앞으로 긴장감 넘치게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안드로메다는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역모를 꾀한 주인을 둔 노예들은 그것이 발각되는 날엔 모두 고문을 당해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었다. 그것은 화가 아렐리우스와 위대한 시인 오비디우스 그리고 전직 검투사 코노파스였다. 철저하게 준비된 그 음모 게임에서 그녀는 목숨을 건 최고의 비너스 패를 잡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그녀는 몸을 핵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공기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태양,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까지도 한 자유로운 여인이 누릴 새로운 세계에 속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그녀의 소망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난쟁이였다 노예 신분인 안드로메다의 눈을 통해 당시 로마의 구석구석을 살살이 알게 된다.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작가는 고대 로마의 세계를,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일상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주인공 안드로메다의 모습도 박물관에서 본 로마의 처녀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그녀를 일부러 유릴라와 극단적으로 대조되게 그렸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1969년 독일 밤베르크에서 태어난 타냐 킹켈은 이미 18살의 나이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13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 글쓴이_ 김재혁(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그녀는 젊은 작가로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역사소설이다. 영국의 왕
 헨리2세의 왕비이자 사자심
 왕의 어머니인 엘레오노레를
 다룬 《아퀴텐의 암사자》와
 《인형극 놀이꾼》 《늑대의 새끼들》
 등의 역사소설로 이미 1990년대에
 《슈피겔》지의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점령한 바 있는 그녀는 최근엔 잠시
 역사소설을 접고 판타지 쪽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이번 2월에
 출간된 새 소설 《비너스 패》를
 들고 자신의 본래 영역으로
 되돌아왔다.

《한결같은 한 길, 한결같은 하나의 일》

일본의 대표 시인이자 화가, 아이다 미치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일본의 대표 시인이자 화가, 아이다 미치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룬 시집 『한결같은 한 길, 한결같은 하나의 일』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아이다 미치오의 자전적 회고록이다. 출판사: 문학수첩



신년 초 일본의 한 서점 귀퉁이에서 “아이다 미치오 캘린더”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보통 사람들 중에 유명 탤런트나 아이돌이 아닌, 그것도 매일매일 읽기도 어려운 필체로 무언가 가득 써놓은 그 캘린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일본의 각 가정마다 꼭 한 권씩은 보유하고 있다는 “아이다 미치오 캘린더”인 이 책은, 캘린더의 초석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저자의 일대기를 그의 아들을 통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서술해 놓은 유고집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와 마음의 구속(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본인의 인생에 빚대어 설명하고 있다.

“길- 길은 스스로 만든다. 길은 스스로 열린다. 사람이 작위적으로 만든 것은 진정한 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지난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의 작품을 팔러 곳곳의 상점에 들렀던 이야기를 해준다. 전쟁 후, 그날그날 먹고 살 식량이 부족하던 그 시절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일, 즉 포장지 디자인이었다고 한다. 포장지 디자인이라니,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절에 걸만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으랴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결국은 모두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일을 구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진한 형제애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울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 전장에 나가 전사한 두 명의 형에 대한 고백은 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온 커다란 굴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슬픔이나 심적인 부담을 부처를 통해, 즉 불심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런 그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은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슬픔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일까? 어쩌면 이렇게 상냥한 것일까? 세상의 고통에 가장 많이 울어봤기 때문일까?”

아이다 미치오, 그의 인생에 있어 불교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으로 실제로 약 40년 간 불교의 제자로 있으면서 윤회나 연에 대해 무척이나 깊은 조예를 드러내곤 했다. 그가 불교와 인연은 맺게 된 데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심한 암흑기였던 1942년, 마을의 절에서 열린 단가대회(시조유희기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다케이 테츠오’ 선생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후 그의 인생에 불가의 가르침은 커다란 지표가 되기에 이른다.

그는,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혹독한 가시밭길을 걸었어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 물론 불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가 개입되어 있긴 하였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제 이생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가 어떠한 강연에서든 항상 잊지 않고 전했다는 다음의 문구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로등은 사람을 위해 켜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난 얼마만큼의 가로등을 켤 수 있을까.” **한글**

글쓴이_ 한귀숙(임프리카 코리아 에이전시)

“부처님은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슬픔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일까? 어쩌면 이렇게 상냥한 것일까? 세상의 고통에 가장 많이 울어봤기 때문일까?”